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THE TRAVELERS

가제 : 더 트래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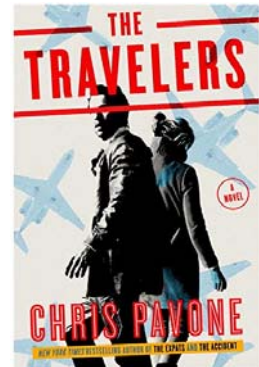
저자 : Chris Pavone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6년 3월 8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소설



#### 드림웍스 제작으로 영화화되는 소설, 에드가 상 수상 작가가 그려낸 히치콕 스타일의 스릴러

2012년 발표한 소설 『The Expats』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에드가 상의 영광을 얻은 크리스 파본이 히치콕 스타일의 스릴러를 새로 완성했다. 드림웍스가 영화 판권을 획득하여 영화로도 만들어질 예정인 이 치밀한 구성의 이야기에서, 주인공 월 로드는 출장 때문에 방문한 지구 반대편의 어느 낯선 장소에서 미스터리한 여자와 만나 전지구적인 음모에 빠지고 만다. 우아하면서도 영리하게 휘몰아치는 속임수, 아슬아슬한 전개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스릴러 소설이다.

아내 클로이와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 월 로드. 같은 직업을 가진 클로이와 결혼하고 주변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시기들은 무사히 넘겼지만, 결혼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결국 두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시작됐다. 전기, 방음 등 소소한 문제가 1년째 끊이지 않는 아파트,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드러나지 않는 질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도통 떠올리기 힘든 오직 임신만을 위한 부부 생활과 반복되는 임신 실패가 가져오는 절망 속에 날로 안색이 어두워져만 가는 클로이를 보면서, 월은 아내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신이 꿈꾸던 삶의 모습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심란해진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모든 일은 여행 기사를 주로 쓰는 기자인 월이 어느 때와 같이 취재를 떠난 아르헨티나에서 시작됐다.

월은 1년 전부터 클로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단연 ‘좋은 일자리’로 꼽히고 명예로운 상까지 받은 잡지 <더 트래블러>에서 일하고 있었다. 회사에서는 월에게 아르헨티나 와인 생산

지역을 취재해올 것을 요청하고, 월은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곳에서 만난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월은 결국 선을 넘어가버린 버린다.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이었다.

### 자신도 모르게 국제 조직의 스파이가 된 기자가 엮이게 되는 치밀한 배신과 속임수, 비밀의 덫

여자와 만난 이후 방에서 잠이 든 월에게 한밤중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다. 시계가 새벽 2시 50분을 가리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덩치 큰 남자가 달빛 아래 서 있다. 성큼 방으로 들어선 남자. 월은 누구냐고 따져 묻지만 남자가 되려 “당신 누구야?”라고 되묻는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낯익은 얼굴. 혼란스러워진 월 앞에 남자는 휴대전화를 내민다. 동영상 파일이 보이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나체의 여성과 한 남자의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2초도 채 지나지 않아 월은 상황을 파악한다. 해상도가 형편 없는 영상이었지만 화면 속에 등장하는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곧바로 알 수 있었다. 바로 자신과 그 여자였다. 뒷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월은 남자를 순식간에 때려눕히고 호텔 보안요원의 도움을 받으러 달려 나가지만, 누군가가 휘두른 강타에 얻어맞아 쓰러진다. 그런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 월은 분명히 어떤 여자의 형체를 보았다.

월은 자신이 아르헨티나로 향하던 날부터 전부 계획된 일이고, 정해진 표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되었고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도 못한 채, 월은 규모도 형체도 알 수 없는 집단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그들이 가라는 대로 유럽 곳곳을 헤매며 이상한 작전을 수행한다. 보르도의 대저택에 이어 파리의 낯선 맨션에 한밤 중 급습하고, 더블린으로 건너가 허름한 술집에 들어섰다가 다시 지중해 연안의 초호화 요트에 몸을 싣고, 아이슬란드의 가파른 낭떠러지 위에 자리한 통나무집도 찾아야 한다.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스파이로 끌려 다니게 된 월. 그들에게 분명 상상할 수 없는 음모가 있고, 월은 두 번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월은 아내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잡지사를 가장한 스파이 에이전시 <더 트래블러>. 월은 이들이 쳐 놓은 치밀한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크리스 파본(Chris Pavone)은 20년 넘게 도서 에디터로 일하다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전작 『The Expats』, 『The Accident』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큰 인기를 얻었다. 에드가 상, 앤소니 상에서 최우수 데뷔소설상을 수상했다.

제목 : DEAD LETTERS  
가제 : 전할 수 없는 편지  
저자 : Caite Dolan-Leach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7년  
분량 : -  
장르 : 스릴러



### 길리언 플린, 킴벌리 맥크레이트와 마리샤 페슬에 비견되는 데뷔 스릴러 소설

#### 다 버리고 떠난 고향에서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는 쌍둥이 언니의 소식, 동생만이 아는 진실

머나먼 미국 고향집에 살고 있는 엄마가 단어 하나도 제대로 타이핑하지도 못한 이메일을 받은 아바는 곧장 파리를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에 보낸 엄마의 이메일에는, 아바의 쌍둥이 언니 켈다가 얼마 전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잔뜩 술에 취해 평소 은신처처럼 자주 가던 집 근처 헛간에 누워 잠들었다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제때 빠져 나오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향하는 지루한 여행길에, 아바는 본능적으로 수상한 낱새를 느끼고 켈다는 절대 죽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부모님이며 세상 사람들이 다 속아도 아바는 알 수 있었다.

같은 날 짧은 시간차로 태어난 아바와 켈다의 이름은 알파벳 첫 글자인 A와 마지막 글자인 Z를 태어나는 순서대로 이름에 넣어야 한다는 부모님의 이상한 규칙에 따라 붙여졌다. 실제로는 아바가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부주의한 간호사가 쌍둥이 중 둘째를 아버지 팔에 먼저 안겨주는 바람에 이름 순서도 바뀌고 말았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처음 붙인 이름을 번복할 순 없다는 또 다른 규칙에 따라 어영부영 동생이 아바, 언니가 켈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켈다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방식이 남들과 달랐다. 둘이 인형놀이를 할 때면 짚으로 작은 인형을 만들어 잔 다르크 역할라 부르고 켈다 자신이 그 인형을 움직이면서 아바에겐 무조건 악당 역할만 맡겼다. 인형놀이의 마지막은 항상 화형이었다. 환상을 보는 사람, 정신이 나간 여자는 무조건 불에 타서 죽어야 한다는 강한 믿음. 켈다가 어린아이답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아바는 잘 알고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바는 엄마와 통화하면서 켈다가 헛간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한 것이 분명한지 한번 더 확인했다. 엄마는 늘 어딘가가 아프고 술에 절어 맨 정신일 때보다 제정신이 아닌 때가 더 많은 사람이고, 아빠는 동네 한량이나 다름 없이 지내며 항상 천하태평이었다. 켈다 언니는 그런 부모님이 질릴 때마다 도피처로 삼아 틀어박혀 있던 자신의 헛간에서 멀리 파리로 떠난 자신에게 이메일을 쓰고, 담배도 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엄마는 소방관이 건조한 6월의 날씨에 작은 담뱃불도 순식간에 번지기 마련이라며 화재사고로 단정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있다. 이 사고의 모든 면면이 너무나 ‘젤다같다’는 것을.

### 죽은 사람이 보내온 이메일, 언니가 곳곳에 남겨 놓은 메모와 단서들... 진실게임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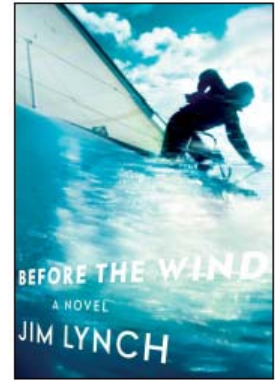
마침내 고향에 도착한 아버지는 젤다가 무엇 때문에 이런 도가 지나친 장난을 시작했는지 밝혀내기로 결심한다. 늘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에 남을 조종하길 좋아하던 쌍둥이 언니였다. 2년 전 아버지가 파리로 떠난 이후 젤다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도록 만든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아무 희망 없는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아버지는 2년 전 다 버리고 떠난 시골 마을을 터덜터덜 거닐며 젤다의 흔적을 찾아 다닌다. 얼마 후 아버지의 예감대로, 죽은 것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젤다에게서 미스터리한 이메일이 한 통씩 오기 시작하고 젤다가 곳곳에 숨겨 놓은 메모와 기록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보물찾기 게임을 하듯, 젤다가 만들어놓은 이 게임에 어느덧 흠뻑 빠져든 아버지는 젤다가 이끄는 대로 발길을 향한다. 먼 옛날 사랑했던 남자들, 시골 한 켠의 이상한 스트립 클럽까지 이르는 젤다의 비밀은 가족의 해묵은 어둠으로 이어지고, 아버지가 다 잊고 싶었던 가족과의, 젤다와의 감정적 유대를 일깨운다. 젤다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어딘가 뒤틀려있는 가족들은 길리언 플린의 <Sharp Objects>를 떠올리게 하고, 아버지가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은 킴벌리 맥크레이트의 <Reconstructing Amelia(아멜리아는 자살하지 않았다)>를 떠올리게 하며, 언어적 유희는 마리샤 페슬의 <Special Topics in Calamity Physics(블루의 불행학 특강)>을 떠올리게 하는 문학적 스릴러이다.

### <저자 소개>

카이트 돌란 리치(Caite Dolan-Leach)는 문학 번역가이자 비평가로 불어로 된 작품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The Quarterly Conversation>, <White Review>에 음악과 문학에 대한 비평을 기고하고 있다.

제목 : BEFORE THE WIND  
가제 : 바람이 불기 전에  
저자 : Jim Lynch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6년 4월 19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성장소설



### 바다와 파도에 미쳐서 살았던 시절, 바람과 항해를 사랑한 타고난 선원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

할아버지 때부터 요트가 삶의 전부인 집안에서 세 아이 중 둘째로 태어난 조슈아. 야생마처럼 기운이 넘쳐흐르던 형 버나드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모는 실력에서 따라올 자가 없을 만큼 남다른 기량을 보이던 여동생 루비와 달리, 튀지도 않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던 둘째 조슈아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위아래 형제들과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다. 우주 비행사나 권투 선수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형, 곡예사나 가수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던 여동생 사이에서 조슈아는 그저 ‘조슈아’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던 아이였다. 세 남매의 일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달랐다. 남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갈 때, 세 명의 아이들은 아버지와 일요일 하루 종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네 사람만 참석하는 행사, 예배나 미사 못지 않게 엄숙하게 치러진 그 행사는 바로 바다에 나가 요트 타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지금 바람이 어디서 불지?” 고향 치는 아버지의 음성은 그 어떤 열성적인 목사님보다 우렁차고, “속도를 높여야지! 서둘러라!” 라는 아버지의 고향 소리는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 아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형이 열두 살, 조슈아가 열 살, 루비가 여덟 살이 되자 일요일 수업은 한층 더 격렬한 집중 교육으로 변모했다. 가상의 경쟁자를 상상하며 시퍼런 파도 위에 배를 몰고 나가 바람을 가르며 고속으로 달리던 시간들. 귀를 멍멍하게 하는 강풍을 뚫고 들려오는 아버지의 호된 잔소리와 지시들. 바람을 등진 채 돛의 방향을 적시에 바꾸어 침로를 바꾸는 연습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올림픽에 출전할 날만 기다리며 연습을 거듭하는 선수들처럼, 세 아이들은 폭풍우가 부는 날에도, 안개가 자욱한 날에도, 시커먼 어둠이 내려 앉은 한밤중에도 연습에 매진했다. 그렇게 한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생사고락을 함께한 선원들처럼 가족을 끈끈하게 이어주던 때가 있었지만, 바로 그 요트와 바다에서의 시간들이 모두를 갈라놓는 원인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 누구보다 끈끈했지만 멀어져 버린 가족들, 전설의 요트를 되살려 다시 찾아가는 시간들

바다를 뒷마당 삼아 육지보다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던 시절. 할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아버지가 손수 제작한 요트를 몰고 서로 경쟁하며 달리던 그 때는 가족 모두 DNA에 깊이 박힌 항해의 본능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았다. 엄마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지만 배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가 잘못되면 작동하지 않는지 모두 꿰고 있는 기술자였다. 하지만 모두 옛 추억일 뿐, 서른한 살이 된 조슈아는 가족 모두와 멀리 떨어진 시애틀의 작은 항구에서 다른 사람들의 보트를 손보고 고쳐주는 일을 하며 혼자 살고 있다. 가끔씩 옛 기억을 떠올리며, 그리움 보다는 원망과 우울함이 더 치솟는 그 시간들을 곱씹으며 외로이 살아가는 조슈아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아버지가 찾아왔다. 옛 습성을 아무 것도 버리지 못한 아버지. 멀리서 다가오는 실루엣만 봐도 심장이 쿵광대게 만드는 아버지는 뜻밖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루비에게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루비는 수년 전,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일하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렸다. 형 버나드는 바다로 나갔지만 어디에서 뭘 하고 사는지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시애틀 남부에서 아직 배와 항구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조슈아는 아버지가 가지고 온 소식들로 인해 아주 오래 전,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배를 몰고 요트 경기에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십 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배, 선원들이나 요트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 소문으로만 전해지는 조슈아 집안의 그 배를 몰고 다시 바다로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행방이 묘연한 형과 동생이 한 자리에 모여야만 한다는 것. 남매는 각자 가슴에 담고 사는 기억과 상처들, 그 모든 것을 달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슈아는 가슴 아픈 진실과 대면한다. 분명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실들, 놀라운 과거와 현실이 부딪히고 오랫동안 외면했던 가족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작가 특유의 유머와 끝을 모르고 영킨 것 같은 갈등을 마법처럼 풀어내는 탁월한 재능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짐 린치(Jim Lynch)는 2005년 발표한 베스트셀러 데뷔 소설 『The Highest Tide』로 2006년 ‘퍼시픽 노스웨스트 북셀러 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소설 『Border Songs』는 TV 드라마 판권이 판매되고 ‘워싱턴 주 도서 상’ 소설 부문을 수상했다.

제목 : FINAL GIRLS  
가제 : 최후의 생존자  
저자 : Riley Sager  
출판사: Dutton  
발행일: 2017년  
분량 : 94,000 words  
장르 : 스릴러



### 악마와 다름 없는 살인마 손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세 명의 여성

예쁘게 장식된 맛있는 컵케이크를 구우며 평범한 생활에 적응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 퀴시. 곧 결혼할 등직한 남자친구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면서 어둡고 우울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퀴시는 사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절대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을 끔찍한 일을 겪었다. 아직 그 일의 여파에서 다 헤어 나오지도 못했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 잔혹했던 밤의 일들이 제대로 기억나지도 않는다. 그런 퀴시에게 담당 경찰이 연락을 해왔다. 만나자는 메시지였다.

마흔 한 살의 덩치가 커다란 퀴시의 담당 경찰은 그 사건이 벌어진 날, 잔인한 살인마의 손에서 퀴시를 구해준 당사자였다. 이후 일년에 두 서너 번씩 퀴시를 찾아와 마치 심리상담을 하듯, 퀴시의 근황을 확인하는 일을 맡고 있다. 사건 이후 해리성 기억상실로 살육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는 퀴시지만, 경찰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날 죽을 듯이 뛰던 자신의 심장 소리와 사건 현장에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며 경악하던 그의 표정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벌써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퀴시는 정신적 충격에 어떤 음식물도 목에 넘길 수 없어 죽기 일보직전인 상태까지 갔었다. 일상 생활로 돌아온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퀴시는 그가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불쑥 만나러 왔을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벼운 안부를 전한 뒤, 불길한 예감대로 그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리사 밀너가 어젯밤,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다. 리사는 퀴시처럼 살인마의 손아귀에 들어갔지만 죽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최후의 생존자'였다. 그런 리사가 자살을 하다니, 퀴시는 믿을 수가 없었다.

리사가 그 끔찍한 일을 겪은 건 퀴시가 겨우 여섯 살 때 일로, 텔레비전 뉴스로 중계된 사건 현장의 모습을 퀴시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열 명의 여대생들이 모여 살던 인디애나 주의 공동 주거시설에 대학 중퇴자인 리브만이라는 남자가 사냥용 나이프를 들고 들이 닦쳤다. 초인종 소리에 처음 문을 열어준 여학생을 시작으로, 그는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에 있던 아홉 명의 여학생들을 차례차례 죽였다. 살육이 이어지는 동안, 리사는 침실 옷장 속에 숨어서 제발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지만 살인마는 결국 리사를 찾아냈고, 그가 휘두르는 칼에 네 번을 무참히 찔리고 한 번만 더 찔리면 숨이 끊어졌을 그 순간, 기적적으로 그의

발목을 움켜쥐고 쓰러뜨리는데 성공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진 것이다.

**석연치 않은 자살 사건, 죽기 직전 남긴 묘한 메시지, 기억나지 않는 사건의 진실이 영킨 스릴러**  
대학 신입생이던 퀴시 역시 호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리사가 겪은 사건과 비슷한 살해 현장에서 홀로 살아 남았다. 퀴시와 리사, 사만다 보이드라는 한 여성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잔혹한 사건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최후의 생존자’라고 불렀다. 이상한 공통점으로 한데 묶인 세 사람은, 서로 얼굴도 알고 연락도 주고 받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퀴시가 보기에 리사는 누구보다 일상 생활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같았고, 사만다는 한 곳에 붙어 살지 못하고 방랑하며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 같았다. 리사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남은 건 사만다와 퀴시 둘 뿐이었다.

그런데 리사가 세상을 떠난 직후, 퀴시의 삶에 느닷없이 사만다가 불쑥 끼어든다. 다짜고짜 난입한 사만다가 당혹스러우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공통점 때문에 퀴시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녀와 급속히 가까워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예측불가에 감정기복이 극심하고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만다의 등장으로 퀴시는 약혼자 제프와 항상 자신을 돌봐주던 경찰과도 사이가 틀어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그리고 리사가 죽은 지 한참 지나서야, 죽기 직전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퀴시는 어쩌면 리사가 경찰 조사처럼 자살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위태롭게 일상을 유지하던 퀴시는 용기를 짜내어 리사의 이 이상한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러려면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만다의 이상한 집착과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 <저자 소개>

저자는 필명으로 라일리 세이저(Riley Sager)를 사용하고 있고 그의 약력은 비밀에 부쳐져 있으며, 이 작품은 저자의 데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NON-FICTION

제목 : THE POWER OF PURPOSE

가제 : 목적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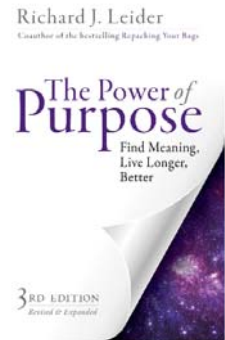
저자 : Richard Leider

출판사: Berrett-Koehler Publishers

발행일: 2015년 9월 4일(3판)

분량 : 21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베스트 셀러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의 저자가 소개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  
2011년, 국내에 번역서가 소개되어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자기계발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의 저자 리처드 라이더가 다시 한 번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한다. ‘삶의 목적’, 즉 개개인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는 것이야말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핵심이라는 저자의 설명을 통해, 생애의 중요한 기점이 되는 순간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코치 5인’ 중 한 명이자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 ‘컨퍼런스 보드’로부터 ‘코칭의 전설’로 불리는 저자의 통찰이 담긴 이 책은 1985년 처음 출간된 후 현재까지 18만 부 이상 판매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고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인생의 목적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유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목적이란 한 사람을 이루는 핵심이자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독특한 존재로 만드는 원천이고,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나타내는 도구이다. 목적이란 렌즈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자신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본다. 나이와 건강 상태, 경제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하루하루 애쓰고 노력하는 발판이 된다. 저자는 이 목적이 한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훌륭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저 달성하기만 하면 끝이 나고 이내 잊어버리는 목표가 아니라 가슴속에 오래 간직하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되려면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하고, 그래야 그 목표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잘 살려면 목적을 가져라!’라고 단언하는 저자는 2판에 이어 대폭 개정되고 업데이트된 이 3판에서 이미 모두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그 가치 있는 목표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방법과 유용한 도구, 기술을 소개한다.

책은 크게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목적’에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4 시간 목적 전략'에서는 마음을 열고 내면에 잠자는 목표가 그 모습을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질문을 소개한다. '목적 확인'에서는 삶의 목적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소개된다. 또 '과학이 목적을 설명해줄 수 있을까?'에서는 목적 의식이 강화되면 건강과 치유 능력, 행복, 수명,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어떻게 검증되고 확인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놀라운 결과들을 설명한다.

자신의 가치와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이 목적은 아침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이유이자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치를 더한다. 삶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지침서다.

#### <목차>

##### 1부.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1장. 목적 확인

2장. 목적에 관한 미신

3장. 목적으로 가는 경로

4장. 목적의 선물

##### 2부. 목적을 향한 여정

5장. 나이와 상관없는 모두의 목적

6장. 나의 이야기를 꺼내자

(이하 생략)

##### 3부. 목적과 일

9장. 24시간 목적 전략

10장. 존재하며 일한다는 것

(이하 생략)

##### 4부. 목적과 건강

12장. '삶의 목적' 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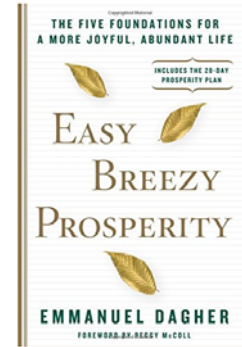
13장. 존재하며 산다는 것.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리처드 J. 라이더(Richard J. Leider) 미국의 저명한 강연가이자 저술가이며 자기개발 분야의 트 레이너다. 21세기를 위한 직업 및 라이프스타일 전략 전문가이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마음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Life Reimagined』 등이 있다.

제목 : EASY BREEZY PROSPERITY  
가제 : 성공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가이드  
저자 : Emmanuel Dagher  
출판사: Rodale Books  
발행일: 2016년 1월 5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저자의 글은 성공과 번영이 행복의 연장선이라는 나의 신념과 일치한다.” — 디팩 초프라

### 베스트셀러인 <EASY BREEZY MIRACLES> 저자의 신작

####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평온함,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현실적인 ‘마음챙김 (mindfulness)’ 명상 가이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생의 성공’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피상적인 부분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영적인 평안과 발전에 관한 조언을 제시하는 책들은 막상 펼쳐보면 물질적인 성공, 즉 돈을 많이 버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없는 문제로 여기듯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들은 정신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은 별로 제시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처럼 한 쪽에만 치우친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며 그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줄 아는 코치이자 지도자로 명성이 자자한 저자의 글은 이미 8만 명 이상이 이메일로 구독하고 있으며, 저자의 페이스북 방문자만 19만 명, 트위터 팔로워도 8만 8천여 명에 이르는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차세대 리더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파괴할 수도 없으며 오직 변할 수만 있다고 보는 물리학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과 생각, 감정, 행동 모두 우주에서 온 에너지이며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삼아, 저자는 바로 이 핵심을 이해하면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변화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는 각자가 가진 에너지를 발휘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을 총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행복 찾기, 순환의 원리 포용하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균형점 찾기, 자신을 지지해 줄 네트워크 형성하기, 감사할 줄 알고 친절할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등으로 구성된 이 5대 원칙은 의식과 환경, 삶 전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골격이 된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성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성공하는 대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확장시켜 훨씬 더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고 삶 전체를 지탱해줄 정신적 뿌리, 그 핵심을 찾는 길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돈을 다루고 취급하는 방식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설명하고, 이미 일구어 놓은 성과나 성공을 자기 자신이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느냐가 나머지 삶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의 풍요로움과 평온함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이야기한다.

각자의 삶에 대한 성찰과 '성공'을 새로운 눈으로 고민해보는 과정을 통해, 생애 전 과정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이끄는 책으로, 돈과 '건강한 관계' 맺는 법,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재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찾는 법, 물리적 공간과 내적 공간에서 잡동사니를 몰아내고 긍정적인 요소가 들어올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는 법 등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팁과 실천 방안들이 함께 제시된다.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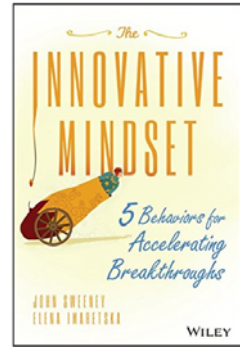
- 번영의 기초 1. 행복 찾기
- 번영의 기초 2. 순환의 원리 포용하기
- 번영의 기초 3. 자신에게 투자하기
- 번영의 기초 4. 나를 지지해 줄 네트워크 구축하기
- 번영의 기초 5. 감사할 줄 알고 친절할 사람 되기

쉽고 명쾌한 번영 전략 28일 실천 계획

#### <저자 소개>

엠마뉴엘 대거(Emmanuel Dagher)는 전인적 관점의 건강관리 전문가이자 인생변화 코치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Easy Breezy Miracle』를 발표했다.

제목 : THE INNOVATIVE MINDSET  
가제 : 혁신적인 마음가짐  
저자 : John Sweeney, Elena Imaretska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5년 10월 26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혁신적인 마음가짐으로 일상생활에서부터 사업과 인생의 혁신을 준비하는 다섯 가지 행동 전략

디지털 시대에 단연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용어는 바로 ‘혁신’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혁신의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재평가하기에 적절한 시점도 없다. 15년 이상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으로 만나 혁신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온 저자 존 스위니와 불가리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일한 후 다시 미국에서 경영학을 배우며 세계 주요 대륙의 다양한 환경과 관점을 체득한 저자 엘레나 이마레츠키는 그 동안 직접 관찰하고,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온 혁신에 관한 조언들을 모아 일터는 물론 가정에서도, 일상 생활에서도 혁신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혁신의 의미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던지는 것을 시작으로, 두 저자는 유연한 구석이라고 찾기 힘든 어려운 이론이나 오로지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수립된 전략으로 해석되는 ‘혁신’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에서 작은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살을 좀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근력을 키우고 싶을 때, 피아노를 배우거나 대인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혁신도 까다로운 이론이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차원적인 계획이 아닌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두 저자는 혁신이라는 용어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에게 꼭 맞는 친근한 발전 전략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과 방법, 즉 ‘혁신적인 마음가짐’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즉흥극 공연에서 커튼이 올라가는 순간 정해진 대본 없이 극을 이끌어가는 배우처럼,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그 결과에 적응하는 것, 그것이 두 저자가 이야기하는 ‘혁신적인 마음가짐’의 핵심이다. 사업적으로나 삶 전체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이 유연한 사고방식을 익히는 전략으로 이 책은 다섯 가지 행동 지침을 소개한다. 마음속에 슬그머니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혁신을 고민하는 것, 구체적인 기술과 도구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에 방해가 되는 근거 없는 편견을 물리치는 것, 주체적인 관점을 확립한 후 이를 남들에게 자신 있게 밝히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 똑같은 상황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해보면서 새

로운 통찰과 다양한 시각을 경험하는 것, 눈 앞에 닥친 장애물과 벽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 이 다섯 가지 행동 지침에는 의사소통 잘 하는 사람, 위기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신감 있고 자신이나 남에 대한 평가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혁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핵심 원리가 담겨 있다.

사업이든 인생 전반에서든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똑같은 노력으로도 성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을 두 저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와 풍성한 자료를 통해 접할 수 있다.

#### <목차>

1. 행동의 혁신: 인간의 특성
  2. '브레이브 뉴 워크숍': 두려운 여정과 발견
  3.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즉흥극의 뿌리
  4. 실천의 기술
  5. 두려운 마음
  6.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을 해부하다
  7. 나만의 혁신 '운동계획' 수립하기
  8. 듣기
  9. 판단은 유보하기
  10. 당당히 밝히기
-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존 스위니(John Sweeney)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코미디 연극 극장인 '브레이브 뉴 워크숍'의 소유주이자 총감독으로, 이 워크숍을 통해 혁신적인 행동 지침과 마음가짐을 수많은 기업과 개인 고객에게 전해 왔다.

엘레나 이마레츠키(Elena Imaretska)는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썬더버그 국제 경영대학에서 MBA를 취득한 후 일본, 독일 등에서 예술, 비즈니스, 혁신,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현재는 '브레이브 뉴 워크숍'에서 기업체 대상 강연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제목 : THE POINT OF VANISHING

가제 : 소실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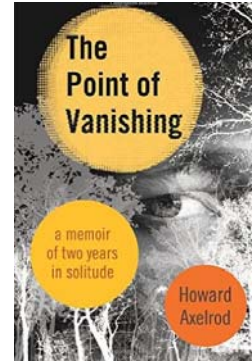
저자 : Howard Axelrod

출판사: Beacon Press

발행일: 2015년 9월 22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도 자기 자신도 낯설어진 그 때 자연이 알려준 삶의 의미, 깨달음의 여정

하버드 대학교 우등생이던 어느 젊은 청년은, 졸업 후에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온 명예로운 전통대로 유능한 변호사가 될 날을 꿈꿨다. 크게 걱정할 일도, 고생할 일도 없이 밝은 미래가 펼쳐진 20대 초반의 그 싱그러운 희망은 어느 밝고 화창한 5월의 오후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만 것이다. 평생 당연한 듯 보고 느낀 세상이 더 이상 원래 알던 세상처럼 보이지 않게 된 그 때, 청년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들었다. 버몬트 주, 인적이 끊긴 산속 낡은 집에서 보낸 1년 반의 시간은 잃어버린 반쪽의 시각 대신 삶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선사했다. 철저히 혼자 보낸 그 침잠의 시간, 헤어나오기 힘든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나선 남자의 이야기가 회고록으로 완성됐다.

저자인 하워드 액셀로드는 대학교 2학년이 마무리되어 가던 5월, 친구들과 농구를 하다가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 팔을 뻗었고 똑같이 공을 향해 덤비던 상대편 선수와 몸을 세계 부딪혔다. 어떤 운동을 하든 으레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소한 부딪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상대방의 손이 하필 저자의 얼굴 쪽으로 뻗어 왔고 손가락이 순식간에 저자의 눈을 깊숙이 찌르고 만 것이다. 서둘러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영영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이 떨어진다. 일주일 뒤 저자는 퇴원하고 기숙사 방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방안, 똑같은 친구들, 눈 한쪽이 보이지 않는 것 말고 주변에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주변 세상이 더 이상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물리적인 시력과 시야가 확연히 바뀌자 사물과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 맞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제대로 가능할 수 없고, 남은 한 쪽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에 꽤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보면서 사는 세상, 불과 일주일 전까지 자신도 볼 수 있었던 세상이 사라져버렸다.

미래도, 현재도 낯설기만 할 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은 저자에게 계획대로 대학을 졸업하는 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주변은 물론 자기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고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훌쩍 여행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1년을 보내기도 하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혼란 속에서 그가 다시 택한 곳은, 소음 가득한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숲 속 오두막이었다.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곳, 머릿속에 떠오른 자신의 생각에 오롯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곳에서 그는 겨울이면 하얀 눈 위를 걷고 여름이면 질푸른 초목 사이를 걸었다. 겨울을 봐도 자신의 얼굴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아가 희미해진 저자에게, 자연의 푸르름과 계절 따라 변해가는 미묘하고 신비로운 움직임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겨울이면 차갑고 무거운 눈에 묻혀 자취를 감추었던 식물들이 봄이 되면 누가 마법이라도 부린 듯, 기적처럼 다시 푸른 잎을 내미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주 천천히, 삶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한다.

진솔하면서도 우아한 문장과 각양각색의 비유로 저자의 내면을 가득 채웠던 고민과 내적 변화를 담아 냈다. 2년간 자연 속에서 보낸 시간이 절망의 고틀머리에 다다른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의 시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을 통해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 <목차>

시작하면서

1부. 맹점이 생기다

2부. 보는 법을 배우다

3부. 소실점

#### <저자 소개>

하워드 액셀로드(Howard Axelrod)는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해 왔다.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IMMORTAL MIND

가제 : 불멸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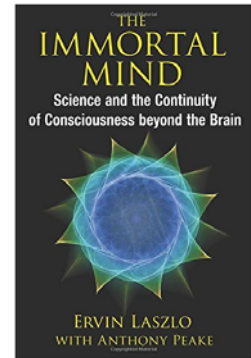
저자 : Ervin Laszlo

출판사: Inner Traditions

발행일: 2014년 10월 23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영성



### 몸이 죽은 뒤에도 의식은 존속할까? 의식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근거들

생물학적으로 숨이 끊어지면, 사람의 의식, 즉 마음, 영혼, 정신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영원히 사라질까? 아니면 몸이 사망한 뒤에도 의식은 그대로 남아서 우주의 또 다른 영역 혹은 다른 차원에 계속 존재할까? 시대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던졌고, 그 의문은 다른 의문들로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다. 인간은 아무런 예외 없이 무조건 필멸하는 존재일까, 아니면 몸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아 존속하는 요소가 존재할까? 이와 같은 궁금증은 각종 종교, 개념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뇌를 비롯한 신체의 생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의식’의 가능성을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공통 분모로 수천 년 이상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대부분 개개인의 통찰이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인생의 의미를 찾거나 영적 훈련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 더욱 객관적이고 확고한 근거로 이 의문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저자는 바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불멸하는 의식’에 관한 의문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고 탄탄한 근거들을 모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저자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의식은 숨이 붙어 있는 상태 즉 살아 있는 유기체와 정신이 연결된 상태는 물론이고 숨이 멎고 연결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한다. 최근까지 밝혀진 자료들을 보면, 뇌가 일시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에서도 의식은 살아 있으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 사후에도 의식은 살아 있다는 증거들이 확인됐다. 정통 과학계에서는 물질론(유물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현상을 인정하지 않지만 종교계나 영적 발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비물질적인 영혼, 혹은 정신은 불멸하는 존재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대립되는 의견과 갈등의 원인이 된 ‘과학적 근거’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을 중시하는 종교적, 영적 개념을 경험 차원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사후 의사소통, 환생, 의식의 변성 상태에서 발생하는 신경감각 정보 등 의식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근거를 통해, 저자는 인간은 육체라는 물리적 실체가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중력, 전자력, 약력, 강력 등 소립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네 가지 근본적인 힘을 기술한 ‘초현’ 이론과 ‘정보장(information fields)’, 에너지 매트

릭스 등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우주의 차원을 다룬 물리학의 최신 분야를 접목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 놓인 존재들은 이 상태로만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또 다른 차원의 존재가 드러난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의식을 우주의 기본 요소이자 불멸하는 존재로 보고, 살아 있는 존재의 끊임없는 발전과 진화에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고찰한 책이다.

<목차>

1부. 근거 - 뇌를 넘어선 의식의 존재

1. 임사 체험
2. 환영, 그리고 사후 의사소통
3. 영매를 통한 의사소통
4. 전기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5. 전생의 기억
6. 환생

2부. 과학 - 우주와 의식

7. '심층 차원'의 재발견
8. 우주 속의 의식

3부. 탐구

9. 의식의 재경험 - 공(空)의 기억
10. 죽음, 그리고 그 이후: 공(空)의 복원

(이후 생략)

<저자 소개>

어빈 라즐로(Ervin Laszlo)는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유럽, 극동의 여러 대학들에서 철학 교수, 시스템과학 교수, 미래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지명되었으며, 일본평화상(고이상)을 비롯한 여러 상들을 수상했다.

제목 : MADE BY...ME! series  
가제 : MADE BY...ME! 시리즈  
출판사: Mango (불어원고)  
발행일: 2015년 9월 22일  
분량 : 각 64페이지  
장르 : 실용



### 비기너들을 위한 아기자기한 DIY 프로젝트!

사진과 함께 소품들을 만드는 방법을 각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실용 도서로, 20개의 간단하지만 독창적인 DIY 생활소품, 공예품 만들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가이드북 시리즈이다.

#### 1. GILETS & PETITS PULLS (BABY KNITTED CARDIGANS & SWEATERS)

1편에서는 신생아부터 생후 12개월까지 영아들을 가디건이나 스웨터 등 니트 짜는 방법을 소개한다. 단계별로 열 네 가지의 옷을 짜는 법을 포함해 초보자들을 위한 기초적인 테크닉을 소개한다.

## Top PAPILLON

**R**éservé aux bébés qui aiment tenir le devant de la scène!  
En jouant sur les coloris, ce débardeur conviendra aussi bien à un bébé gentleman qu'à une petite lady.

**Fournitures**

Fil 40% laine peignée, 20% acrylique et 30% polyamide, 50 g/125 m, pour aiguilles n° 4 : 2 pelotes vertes (fil A)  
Fil 50% coton et 50% acrylique, 50 g/115 m, pour aiguilles n° 4 : 1 pelote grise (fil B)  
Paires d'aiguilles à tricoter n° 3 et n° 3,5  
Aiguille à laine, paire de ciseaux

**Tailles**

3 mois [6 mois-12 mois]

**Echantillon**

Avec les aiguilles n° 3,5, en jersey, un carré de 10 cm de côté = 24 mailles et 31 rangs.

Dimensions en centimètres.





## 2. BONNETS & CHAUSSONS (BABY KINTTED HATS & BOOTIES)

2<sup>e</sup> partie BONNETS & CHAUSSONS에서는 아기 모자나 니트양말 18종을 만드는 법 등을 100장이 넘는 단계별 안내 사진으로 설명한다.

### Mini-BASKETS

#### Fournitures

Fil 100% acrylique,  
50 g/140 m, pour aiguilles n° 4:  
1 pelote gris clair (fil A),  
1 pelote gris foncé (fil B),  
1 pelote jaune fluo (fil C),  
1 pelote vert fluo (fil D)  
Arrêt de mailles  
Paire d'aiguilles à tricoter n° 3  
Aiguille à laine, paire de ciseaux

#### Note

La combinaison de deux mailles ensemble et d'un jeté forme un petit jour.  
Chaque côté du chausson comporte trois jours, dans lesquels sera tissé le lacet.

Les premiers baskets de Bébé, so funky! Il les portera en tout confort de la naissance à 3 mois.

#### SEMELLE

◆ Avec le fil A, montez 41 m. Travaillez au point mousse.  
Rgs 1. Tric. droit.  
Rg 2 et tous les rgs pairs suivants. Tric. droit.  
Rg 3. \*1 m., 1 aug., 19 m., 1 aug.\*, rép. 1 fois de \* à \*, 1 m. = 45 m.  
Rg 5. 2 m., \*1 aug., 19 m., 1 aug.\*, 3 m., rép. 1 fois de \* à \*, 2 m. = 49 m.  
Rg 7. 3 m., \*1 aug., 19 m., 1 aug.\*, 5 m., rép. 1 fois de \* à \*, 3 m. = 53 m.  
Rg 9. 4 m., \*1 aug., 19 m., 1 aug.\*, 7 m., rép. 1 fois de \* à \*, 4 m. = 57 m.  
Rgs 10 à 14. Tric. droit. Coupez le fil A.

#### CÔTÉ DROIT

◆ Continuez avec le fil B, en jersey.  
Rg 15 (end.). 24 m., tournez et laissez les 33 dernières m. en attente sur l'aig. gauche (⊗ 1, page 43).  
Rg 16 et tous les rgs pairs suivants. Tric. droit.  
Rg 17. 18 m., 2 fois 2 m. ens., 1 jeté, 2 m. = 23 m.  
Rg 19. 19 m., 2 m. ens., 2 m. = 22 m.  
Rg 21. 18 m., 2 m. ens., 2 m. = 21 m.  
Rg 23. 17 m., 2 m. ens., 2 m. = 20 m.  
Rg 25. 14 m., 2 fois 2 m. ens., 1 jeté, 2 m. = 19 m.  
Rg 27. 15 m., 2 m. ens., 2 m. = 18 m.  
Rg 29. 14 m., 2 m. ens., 2 m. = 17 m.  
Rg 31. 11 m., 2 fois 2 m. ens., 1 jeté, 2 m. = 16 m.  
Rg 32. Tric. droit. Coupez le fil B.

◆ Avec le fil A, tric. 4 rgs à l'end. Rab. les 16 m. (⊗ 2).

40



#### CÔTÉ GAUCHE

◆ Reprenez les 33 m. de l'aig. gauche, sur l'end. Mettez les 9 premières m. en attente sur l'arrêt de mailles (⊗ 3). Travaillez avec le fil B, en jersey.  
Rg 15 (end.). Tric. droit (⊗ 4).  
Rg 16 et tous les rgs pairs suivants. Tric. droit.  
Rg 17. 2 m., 1 jeté, 2 fois 2 m. ens., 18 m. = 23 m.  
Rg 19. 2 m., 2 m. ens., 19 m. = 22 m.  
Rg 21. 2 m., 2 m. ens., 18 m. = 21 m.  
Rg 23. 2 m., 2 m. ens., 17 m. = 20 m.  
Rg 25. 2 m., 1 jeté, 2 fois 2 m. ens., 14 m. = 19 m.  
Rg 27. 2 m., 2 m. ens., 15 m. = 18 m.  
Rg 29. 2 m., 2 m. ens., 14 m. = 17 m.  
Rg 31. 2 m., 1 jeté, 2 fois 2 m. ens., 1 jeté, 11 m. = 16 m.  
Rg 32. Tric. droit. Coupez le fil B.

◆ Avec le fil A, tric. 4 rgs à l'end. Rab. les 16 m.

#### LANGUETTE

◆ Reprenez les 9 m. en attente (⊗ 5). Tric. 30 rgs à l'end. Rab. les m. (⊗ 6).

#### FINI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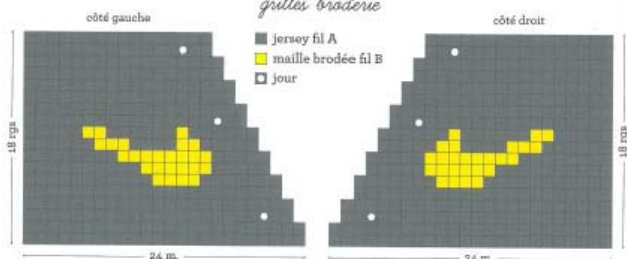
◆ En suivant les grilles ci-dessous, brodez les motifs au point de maille (voir page 8) sur les côtés du chausson, avec le fil C.

◆ Rentrez les fils sur l'env. Effectuez des coutures pour fermer l'arrière du chausson et la semelle.

◆ Pour le lacet, réalisez une cordelière avec 2 brins de fil D de 60 cm de long. Tissez-la dans les jours des côtés.

Réalisez un second chausson semblable.

#### grilles broderie



42



43

### 3. MA FABRIQUE DE BIJOUX (MY JEWELRY FACTORY)

마지막 편에서는 실과 가죽을 꿰거나 자르고 묶어서 팔찌나 귀걸이, 목걸이를 만드는 법을 소개하고 있다.

#### Le maxi bracelet brésilien à chevrons et strass

##### Matériel

32 fils de coton de 1 m,  
de 6 coloris différents  
(12 prune, 4 roses, 6 fuchsia,  
2 dorés, 4 moutarde et 4 orange)  
1 strass cabochon de 14 x 10 mm  
4 strass ovales de 7 x 10 mm  
2 strass ronds de 9 mm de diamètre  
2 embouts plats pour  
cordon de 3 cm de large  
1 fermoir mousqueton  
de 10 mm de diamètre  
1 chaînette de réglage  
Masking tape  
1 pince à bouts ronds  
Une aiguille et du fil à coudre



◆ Réalisez un bracelet brésilien à chevrons (voir pages 12-13), sans faire de tresse mais en nouant tous les fils ensemble et en laissant dépasser environ 6 cm de fils (①). Tissez-le sur 16 cm et coupez ses extrémités au ras des nœuds.

◆ À l'aide d'une pince plate, installez un embout plat à chaque extrémité du bracelet. Vous pouvez ajouter une pointe de colle sur les extrémités du tissage avant de fixer l'embout, pour éviter que celui-ci ne s'effiloche (②).

◆ Fixez le strass cabochon au centre du bracelet. Pour cela, pliez le bracelet en deux, marquez légèrement le pli afin de repérer le centre et dépliez-le. Coupez environ 60 cm de fil à coudre, insérez-le dans le chas de l'aiguille et doublez-le. Faites un double nœud à environ 10 cm de l'extrémité du fil, piquez le bracelet sur l'envers et faites ressortir l'aiguille sur l'endroit. Glissez l'aiguille dans deux trous opposés du strass cabochon (③), repiquez le bracelet et faites ressortir l'aiguille sur l'envers. Répétez l'opération et faites de même sur les deux autres trous du cabochon. Pour solidifier votre couture, passez toujours deux fois dans le même trou.

◆ Cousez les autres strass un par un, en les positionnant comme sur les ④ et 5. Pour les placements, n'hésitez pas à noter des petits repères au stylo, directement sur le bracelet.

◆ Lorsque tous les strass sont cousus, faites un double nœud avec les deux extrémités du fil à coudre, sur l'envers du bracelet (⑥).

◆ Installez le fermoir ainsi que la chaînette de réglage (voir page 7).

16



##### Astuce

Jouez avec les différentes  
tailles de strass, ajoutez-en,  
remplacez-les par de petites  
perles, des chaînettes...

17